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0.3%...민간소비 ↑ 설비투자 ↓

지난 1분기 GDP 0.3%...시장 전망치 웃돌아 민간소비 늘었지만...설비투자 -4.0%로 부진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 증가해 플러스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전년 동기대비로는 0.8% 상승했다. GDP는 지난해 4분기 -0.4%를 기록해 2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전환했으나 1분기

엔 0.3%로 나타나 당초 시장 전망치였던 0.1%~0.2%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민간소비 등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0.3%포인트로 나타나 전분기(-0.3%포인트)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소비 기여도는 전분기(0.5%포인트)보다 0.5%포인트 낮

아진 0.0%포인트였다. 순수출 기여도(수출-수입) 역시 -0.1%로 지난 4분기(-0.5%포인트)보다 개선됐으나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기여도는 각각 0.0%포인트, -0.4%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지난 분기 -0.1%포인트를 기록한 뒤 플러스 전환됐다. 주체별 기여도는 민간이 0.4%포인트로 나타나 전기(-1.3%)보다 큰 폭 상승하며 플러스 전환한 반면 정부는 전분기(0.9%)보다 하락한 -0.2%포인트로 집계돼 마이너스 전환됐다. 부문별로는 수출이 자동차 등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3.8% 증가했으며 수입은 화학제품 등이 늘어 3.5%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오락 문화와 음식숙박 등 소비를 중심으로 0.5%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이 줄었으나 사회보장선물수혜가 늘어 0.1%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2% 증가했으나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줄어 4.0%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은 부진을 보였으나 제조업이 증가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8%포인트 증가했으나 서비스업은 의료·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등이 늘었으나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운수업들이 줄어 0.2%포인트 감소해 마

이너스 전환했다. 반면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1차 금속제품 등이 늘어 2.6%포인트 증가했다. 이 외에도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2.5%포인트,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가스, 전기와 공급시설 공급업을 중심으로 2.0%포인트 감소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8%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실질 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감안한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김재환기자



이마트, 내달 7일까지 완구 최대 40% 할인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마트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완구 상품을 보여주고 있다. 이마트는 내달 7일까지 문구·완구를 최대 40% 할인하고, 완구 랜덤 럭키박스과 인기 캐릭터 중심 기획 완구를 선보인다.

‘가정의달’ 맞이 이벤트...쿠쿠·쿠첸, 가전업계 혜택 풍성

가전업체가 5월 한 달간 구매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25일 종합 건강 생활가전 기업 쿠쿠전자는 제주도 여름 휴가 응모 이벤트 ‘기분 좋은 바람 전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5월 31일이다. 참여고객이 현재 심리 상태와 관련된 네 가지 질문에 답변하고 마인드 케어 영상을 시청하면 답변에 맞는 쿠쿠의 에어서플레이터가 추천되며 응모가 완료된다. 쿠쿠는 추첨을 통해 2명에게 제주도 리프레시 여행 패키지를 증정할 예정이다. 쿠쿠는 지난 3월 인스퍼어 에어서플레이터 신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프리미엄 주방가전기용 쿠첸 역시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7일까지 공식 온라인 쇼핑몰 ‘쿠첸몰’에서 ‘뽕큐혜택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행사 기간 내 쿠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부 특가 품목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한 20% 할인 쿠폰 ‘뽕큐쿠폰’을 지급한다. 프리미엄 밥솥 ‘쿠첸 트리플’, ‘121 ME’도 특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는 26일까지 쿠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5월 1일까지 쿠첸몰에서 리뷰를 작성, 이벤트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구매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매 금액이 40만원 이상인 고객들부터 참여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쿠쿠, ‘기분 좋은 바람 전환’ 이벤트 진행
쿠첸, 뽕큐혜택 프로모션...20% 할인 쿠폰

가정의 달 뽕큐혜택 오 - 월
감사한 마음 쿠첸으로 전하세요 ~2023.05.07

혜택 하나. 뽕큐기간 20% 할인 쿠폰 지급
혜택 둘. 플러스혜택 밥솥사면 냄비가 만원
혜택 셋. 얼리버드 구매 인증 상품권 증정 이벤트

10명 중 3명꼴 “급여 줄더라도 재택근무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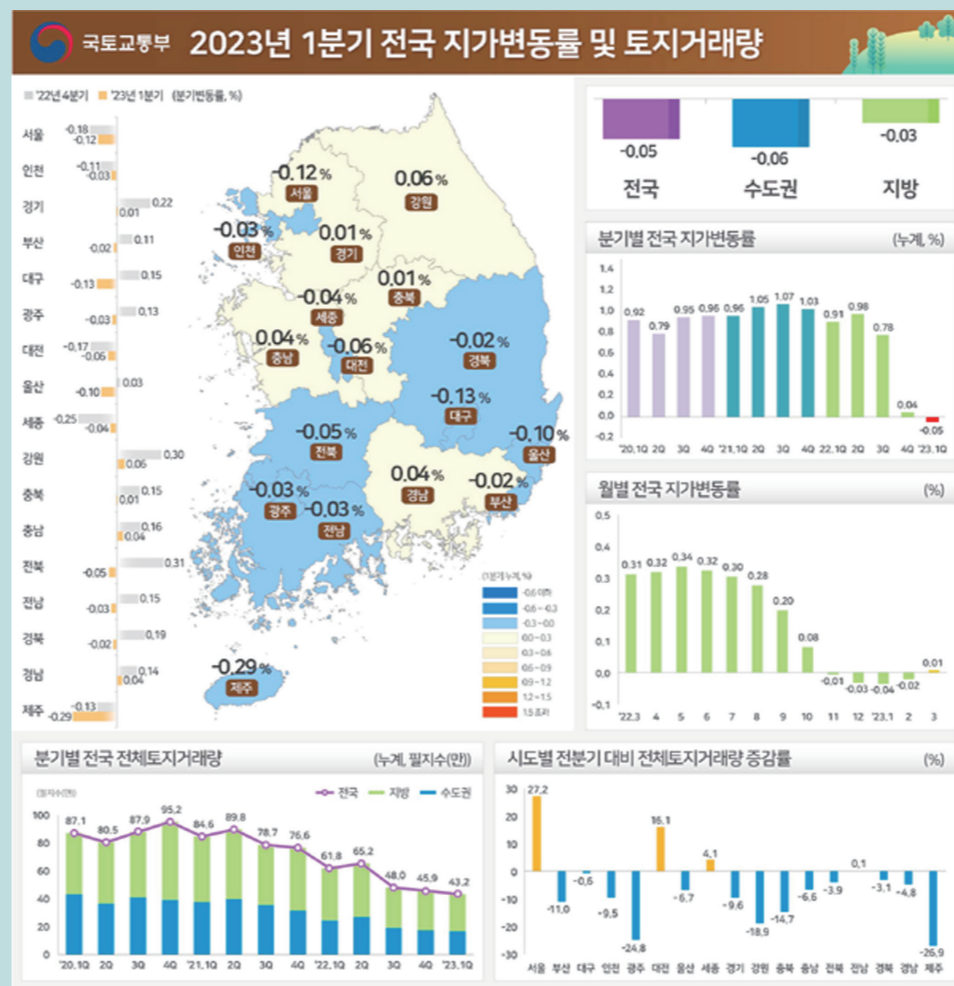
응답자 58% “재택근무 여부가 입사에 영향”

성인 10명 중 6명 정도가 취업 및 이직을 결정할 때 해당 회사의 재택근무 여부를 따져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국내 재택근무 현황과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 697명과 구직자 367명 등 총 10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40%가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60%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실 출근자 중 78%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됐다’고 밝혔고, 나머지 22%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재택근무 중인 경우 만약 회사에서 현재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이직을 고려할 뜻이 있는지 물어보자 응답자의 70.3%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취업 또는 이직 시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가 여부가 입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

이나 묻는 질문에는 ▲매우 클 것 16.4% ▲대체로 클 것 41.6% ▲대체로 적을 것 34.4% ▲매우 적을 것 7.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58.0%) 이상이 재택근무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단 재택근무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재택근무 경험 직장인에게 업무 효율이 실제로 높았는지 묻자 ▲매우 높음 9.6% ▲대체로 높음 35.3% ▲대체로 낮음 48.8% ▲매우 낮음 6.3% 순으로 과반(55.1%)이 업무 효율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 단축(48.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편안한 장소에서 편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는 것(18.8%)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대신 급여와 상여금을 삭감할 경우 무엇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3명(29.4%) 꼴로 ‘급여가 삭감돼도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답했다. 서선욱기자

전국 평균 땅값 약 12년 만에 내렸다...1분기 0.05% 하락

국토부·부동산원 1분기 전국 지가



분기별 땅값이 0.05% 내려 2010년 3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해 2022년 4분기(0.04%) 대비 0.09%포인트(p), 2022년 1분기(0.91%) 대비 0.96%포인트 내렸다고 25

일 밝혔다. 분기별 지가변동률이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2010년 3분기(-0.05%) 이후 약 12년 만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00%→-0.06%) 및 지방(0.12%→-0.03%) 모두 지난해 4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주(-0.13%→-0.29%), 대구(0.15%→0.13%), 서울(-0.18%→-0.12%), 울산(0.03%→-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밑돌았다. 서울 서대문(-0.52%), 성북(-0.49%), 동대문(-0.45%), 강서(-0.42%), 중랑(-0.41%) 등 92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달 지가변동률은 0.01%로 전월(-0.02%) 대비 0.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0.01%)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0월(0.08%), 11월(-0.01%), 12월(-0.03%), 1월(-0.04%), 2월(-0.02%), 3월(0.01%)의 추이를 나타낸다. 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3만2000 필지(340.5km)로, 지난해 4분기 대비 5.8% 감소(-2.6만 필지), 지난해 1분기 대비 30.1% 감소(-18.6만 필지)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만5000 필지(318.6km)로, 전분기 대비 17.9% 감소(-4만 필지), 2022년 1분기 대비 29.9% 감소(-7.9만 필지)였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서울(27.2%), 대전(16.1%), 세종(4.1%), 전남(0.1%) 등 4개 시도에서 늘었고, 13개 시도에서 줄었다. 최이슬기자